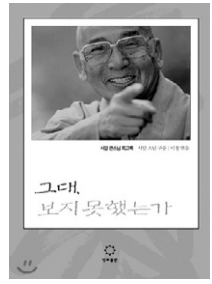


# “내 마음 밖에 죽고 사는 문 따로 있지 않아”



그대, 보지 못했는가  
서암 스님 구술  
이정 역음  
정토출판 펴냄  
1만6천원

“여보게, 어떤 한 사람이 논두렁 밑에 조용히 앉아서 그 마음을 스스로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중이요, 그곳이 바로 절이지, 그리고 그것이 불교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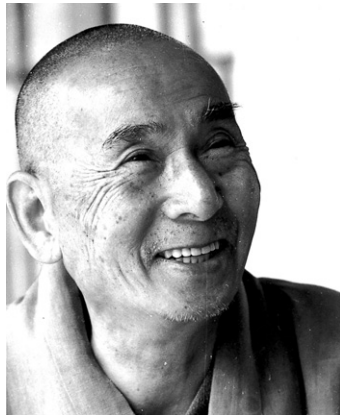
젊은 시절, 불교계의 현실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법륜 스님은 1980년대 미국 LA의 작은 사찰에서 노스님 한 분을 만난다. 법륜 스님은 노스님의 이야기에 불교 운동이라는 이름에 매몰돼 있던 자신의 삶을 각성하고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다. 이 노스님이 바로 제8대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서암 스님이다.

전 조계종 종정, 한국 최고의 수도선원인 봉암사 조실 등 서암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지만 그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는 ‘자유와 원칙’이다. 일본 유학시절 중증 폐결핵 진단을 받고 귀국한 서암 스님은 처음 출간한 문경 김용사서 옹병정전 했다. 그러던중 스님은 ‘생명, 그것은 곧 마음이니, 내 마음 밖에 죽고 사는 문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의 육신을 보며 깨닫는다. 이후 스님께서는 평생 하나의 원칙을 지니고 살아갔다.

그 것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하더라도 불법에 맞게 수행하는 자세로 하면 산속에서 정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산속에 앉아 홀로 정진하더라도 못 중생의 고통을 잊지 않으면 자비 실천에서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으로 세상과 종단 그리고 여러 불자들이 원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했다. 그러다가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해나갈 환경이 못될 때는 아무 미련도 없이 그 ‘자리’를 내던지고 수행자의 본분으로 돌아왔다. 해방 후 경북 중무원장 시절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종정에 이르기까지 스님은 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직책을 맡고 또 미련 없이 내려놓고 사문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불교의 근본원칙 하나를 갖고 스님은 문중, 역할, 종단에 구속되지 않은 자유인 그 자체로 평생을 살아가셨다.

**생활 선(禪), 내 마음을 찾는 법**  
평생 선 수행을 바탕으로 범문하고 공부한 스님은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생활선의 범문’으로 알려져 있다. 선에 있어서도 생활 속 실천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선이란 것은 어디 다룬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손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울고 웃고 이웃 간에 대화하는 그 속에서 24시간 내 모습을 온전히 찾아가는 것, 그것이 생활선”이라는 것이 스님의 가르침이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항상 바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정작 현재의 나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본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불교는 마음의 정체를 밝히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자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알려준다. 그리고 그 자기 마음자리를 깨닫는 방법을 선(禪)이라고



열반 10주기 맞은 서암 스님 회고록  
평소 일상생활 속의 선 강조해

했다. 그래서 출가승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선이다. 그리고 선은 불교 전매특허가 아니라고 말한다. 혼돈과 고통으로 얼룩진 정신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자기 본래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참선이고 생활선이다.

**중단분규, 종정 탈퇴와 탈종 그 오해와 진실**  
서암 스님은 해방이후 왜색화된 한국불교를 정화한다는 목적으로 불려들었던 폭력이 오늘날까지 불교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대의와 명분은 옳았어도 그 방식이 문제라면 불교적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꼭 물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단식이든 집회든 다종의 힘을 과시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폭력이며 폭력적인 해결법은 세속의 방식이고 불교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 스님의 뜻이었다.

1994년 종단개혁 당시, 대중의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부정하고 막으려 했다. 대중들은 내편·내편으로 나눠 대중의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서암 스님은 우리 편이 아니다’는 오해와 더불어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갔다. 비불교적인 방법에 대해 불교적인 원칙을 제시하며 서암 스님은 종정을 사퇴하고 종단밖으로 나갔다.

일련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못 평가되고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암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는 지금, 서암 스님의 종정사퇴와 탈종은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수행자로서 최대의 명예로움으로 다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 노장,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갔다 해라**  
열반에 들기 전 시봉하던 제자들이 스님께 한 말씀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자 스님께서 한마디 했다.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 계승도 아니고 범문도 아닌, 평범하게 그치지 않는 말. 그러나 부처님을 비롯하여 이 세상의 불교 전체를 아우르고 질타한, 가장 불교적인 한마디였다.

무언가 드높고 복잡 미묘한 경지를 이르면 가지롭게 여기는 풍토에서 스님의 담백한 한 말씀은 이런 세태를 피조어주는 것만 같다. 서암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스님의 수행과 깨달음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하는 이유는 삶이 풍요로워지면서도 정신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청량수와 같은 시원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검소한 삶과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주일 기자

#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기 위한 ‘인생 처방전’

있는 그대로

미스노 슈묘 지음 | 라이프 펴냄 | 1만3천원



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그저 모든 일을 대할 때 사고관이나 관점을 조금만 바꾸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스님은 그것을 돕기 위해 선어(禪語)에 담겨있는 삶의 지혜를 마음, 사람, 시간, 변화 그리고 인생이라는 5가지 주제로 나누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변화 없이 담담히 흐르는 일상 속에 숨어 있다. 인간은 평범한 일상을 통해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지금 힘이 드는가? 그것은 한순간일 뿐이다. 그런 것들은 어쩌면 우연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얽매면 자신을 지키려는 나머지 더한 고통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큰 파도에 몸을 맡길 줄도 알아야 한다.

성적과 성과에 대한 고민, 경쟁서 뒤쳐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실감, 앞날에 대한 걱정,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찾지 못해서 생기는 방향 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욕심,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열등감,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서 오는 무기력감,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이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거기에 휩쓸려 힘겹게 살아 가고 있다. 이 책은 힘들고 지치고 상처 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한다.

이 책 저자인 미스노 슈묘 스님은 이 책 저자인 미스노 슈묘 스님은 겐코지의 주지 스님으로, ‘선’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원디자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원디자이너로서는 최초로 일본 예술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예술선장 문부대신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독일연방공화국 공로훈장인 공로심자훈장,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공로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또한 2006년에는 일본판 「뉴스위크」는 스님을 ‘세계가 존경하는 100명의 일본인’에 선정하기도 하였다. 스님은 이 책에서 집착과 망상, 번뇌를 벗어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으로 선의 가르침을 제시한다.

선(禪)은 그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며, 얽매이지 않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다시 말해 ‘본래의 자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만나’는 것이다.

지금 눈앞의 일에 전력을 다해 매진하여 ‘이 순간’을 살아내면 살아 있는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에 대

## 禪, 본래 자신과 만나는 것

지금 ‘순간’ 전력 다해 살자  
5주제로 나눠 ‘인생’ 쉽게 설명

힘들고 지치고 상처 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걱정과 고민, 스트레스 가득한 일상을 반복하는 이들에게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를 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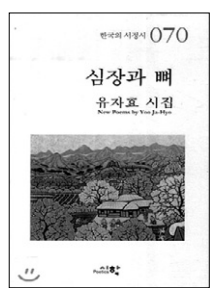
## ▲저자 미스노 슈묘는?

1953년 가나가와 현 출생으로, 겐코지의 주지 스님이자 정원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다. 또한 다마미술대학 환경디자인과 교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특별교수로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선(禪) 사상과 일본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선의 정원’ 창작 활동을 통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예술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예술선장 문부대신 신인상’을 정원 디자이너로서는 최초로 수상했으며, 독일연방공화국 공로훈장인 공로심자훈장,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공로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2006년에는 「뉴스위크」 일본판 ‘세계가 존경하는 100명의 일본인’에도 선정된 바 있다. 저서로는 「결레 한 장으로 삶을 닦는 스님의 청소법」이 있다.

## 60대 시인 ‘삶의 편린’ 시어로

심장과 뼈

유자호 지음 | 시와시학 펴냄 | 8천원



중저음의 목소리가 매력적인 로맨티스트 방송인 유자호 시인 (67)이 새 시집을 출간했다. 열 네번째 시집이자 5권의 산문집을 합해 총 열 아홉번째 책이다. 책 이름은 좀 생물학적이다. 「심장과 뼈」다. 시집 서문에서 “젊은 시절에는 나이 들면 좀 초연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시집에 실린 시편들은 60대 중반 내 삶의 편린들에 대한 기억”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인은 자신의 심장 수술에 대한 단상을 시어로 가득 퍼 올렸다.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껏 함께 해 준 몸매에 대한 감사와 자신을

염려해 준 고마운 이들도 언급했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 외로운 줄 알았는데 / 사랑받고 있었구나 / 보호받고 있었구나...”

시인은 인도서 부처님이 발견한 사성제와 연기법을 되새겨 보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열어 준 드넓은 길을 바라본다. 스승을 빛나게 하는 진리의 길이다. 그 길은 ‘하나이나 여럿이고 여럿이나 끝내 하나의 길’ (一即多 多即一)인 화엄의 세계다.

시집 마지막에는 예순여섯의 시인으로 돌아와 다시 자신 앞에 놓인 강을 관조한다. “아버지 세상 뜬 나이 다가서는 이 가을 / 점은 점차 줄어들고 근심은 쌓이는데 / 어떻게 건너셨을까 / 홀로 이 외로운 강”

시인은 삶의 가느다란 끈을 주시하고 있다.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을 그 끈은 시인의 미래에 대한 설계도다. 그런 시인에 시인은 ‘묵시적 희망’을 담아내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제주지역 27개 사찰 안내서

제주사찰에서 나를 찾다

이병철, 한기완 지음 | 제주불교신문 펴냄 | 2만5천원



제주불교신문 기자들이 펴낸 제주사찰안내 1집 (제주사찰에서 나를 찾다)가 발간됐다. 지난 2009년 피라 책자 발간 후, 제주 불교신문이 제주 불교교신문이 제주 불교교신을 정리해 제주 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또 다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 책 발간을 위해 제주불교신문 기자들은 도내 사찰을 발로 누비며 사찰 역사와 문화재 전각 등을 두루 조사하고, 각 사찰 스님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했다. 또한 신행 및 봉사 단체의 활동 등 사찰의 다양한 모습을 고루 실었다. 김주일 기자

사실 제주도 불교성지순례길에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각광 받고 있는데 반해 도내 사찰들은 순례객들에게 만족스런 안내를 펼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책 발간을 계기로 제주불교계의 성지순례 인프라 구축에 한몫을 단단히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책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몰려오는 순례객과 관광객을 위한 각 사찰의 리플릿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취약하게 여겨졌던 사찰 정보에 크게 보강하고 앞으로는 도내사찰 홍보에도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책에는 관음정사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약천사 극락사 보덕사 대원정사 등 27개의 사찰들의 역사와 문화, 주지 스님 인터뷰 등이 소개됐다.

제주 불교신문은 이번 책자 발간에 뒤이어 울진반기에도 제주사찰안내 2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 희 소 식

##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모집중

「마음으로 행복한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덕암사  
도림사찰음식문화원

도림스님

◎ 사찰음식 전시회 및 점심 대중 공양 ◎

대한불교조계종 덕암사·도림사찰  
음식문화원은 현대인의 몸에 유익하고 바른 먹거리를  
홍보하며, 자연적인 사찰음식 문화를 보급하고자  
사찰음식 전시회및 점심 대중 공양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13 . 4. 28(일요일) 12:00 ~ 15:00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덕암사  
도림사찰음식 문화원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월문리 200번지 묘적사 입구)
- 문 의 : 덕 암 사 TEL : 031-576-1336  
H.P : 010-2120-2385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대한불교조계종 덕암사·도림사찰음식문화원  
주 지 도림 합장

## 설법·화술

###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대외독해】**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대내연계】**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에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특기강좌】**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교포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소수정에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진리여수】**

[우불 김철회 박사]  
사)한국산업기술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김철회 박사 직접 지도

• 회장 김철회 박사  
• 원장 처 명(선광)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성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사)한국산업기술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명산재 이수자

## 한국설법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